2025/10/13

[Quant] 정상휘 책임연구원 sh.jeong@iprovest.com

3Q25 실적시즌 Preview: 주가 상방 Drift 기대종목 점검

- 역사적으로 특출난 호실적이 기대되는 것은 아니나 평균 이상의 호실적은 기록할 수 있을 것.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기계, 상사/자본재가 보이고 있는 과거 동분기 대비 높은 성장세가 3Q25 실적발표에 대한 기대감 키우는 중

- 역대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예측 성과를 높인 3가지 팩터와 실적 이벤트 관련 긍정적인 주가 Drift를 보일 종목군 예측 성과를 높인 수급-밸류 결합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에코프로비엠, LG디스플레이, 리노공업, 엘앤에프 등의 주가 상방압력 기대

반도체 및 산업재 주요 업종 실적 성장세에 근거한, 3Q25 실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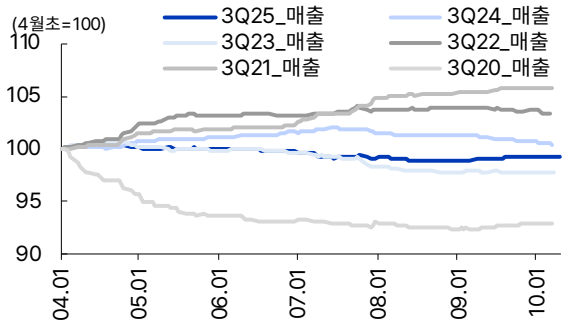
3분기 실적시즌 개시를 앞둔 현재 국내 증시 전체 업종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8.7조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업종은 순이익을 합산), 금융 업종 외의 업종들에 대하여 예상 매출액은 643.5조원, 영업이익률은 9.03%로 예상되고 있는 중이다.

3Q25 실적 예상 흐름을 과거와 비교해볼 때 역사적 레벨 수준으로 뛰어나거나 부진한 연도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의 호실적은 기록할 거란 기대감은 녹여져 있다. 최근 5개 연도별로 비교해볼 때 3Q25 실적 예상흐름이 21년 같은 실적 호황이나 극도로 부진했던 20년과 같은 흐름을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과거 5년, 10년 평균 레벨과 비교해보면 3Q25 이익 및 이익률은 과거 평균 레벨 대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적시즌이 점차 임박해오고 예상을 위한 보다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는 시점인 9월 이후 3Q25 실적에 대한 상향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생긴 양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3Q25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Q25 이익 컨센서스의 상향 추세가 크게 나타난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기계, 상사/자본재, 증권 업종이다. 최근 5, 10년간 보여온 3Q 이익 컨센서스 변화추이와 비교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업종은 과거에 보인 방향성과 다른 정의 방향성을 보이며 이익 개선 흐름이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계, 상사/자본재** 업종에선 과거에 보인 변화 형태는 유지된 채 이익 레벨 자체의 개선이 이뤄졌다. 과거 동분기와 비교해볼 때 높은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상 5개 업종이 국내 증시 3Q25 실적 기대감을 높인 일등공신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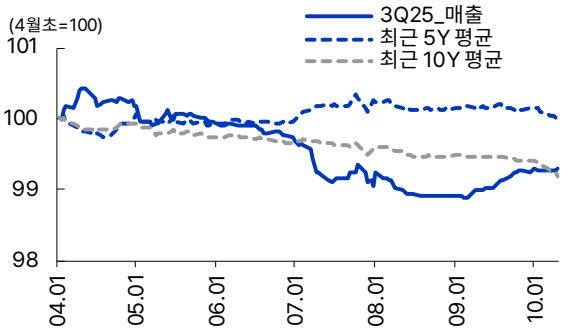
화학 및 IT가전 등 2차전지 관련 업종과 자동차, 에너지, 철강, 운송, 화장품/의류, 미디어, IT하드웨어, 통신서비스 등은 3Q25 이익 컨센서스의 하향세가 두드러졌다. 그 중 **자동차, 에너지, 철강, 운송, 통신서비스** 업종은 과거 동분기 보였던 흐름들과 완전히 다른 부의 방향성이 나타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다. **2차전지 관련 업종**은 과거에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갔었으나 현재는 과거보다도 더 큰 조정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화장품/의류, 미디어, IT하드웨어는 과거보다는 이익 예상에 대한 시선이 개선됐음이 확인된다.

[도표 1] 3Q 실적시즌 개시 직전까지의 매출 컨센서스 흐름(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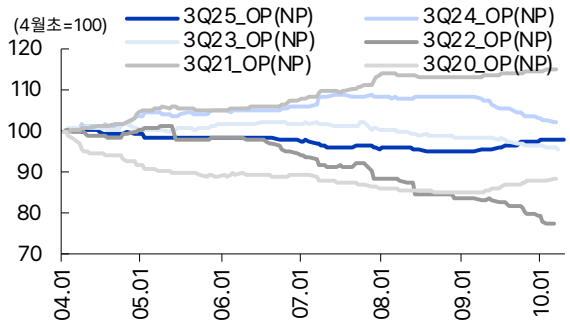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당해 4월초 이후 9월말까지 매주 컨센서스가 존재한 국내 전 종목 대상(금융 제외)

[도표 2] 3Q25 매출 컨센서스 흐름의 최근 5년 및 10년 흐름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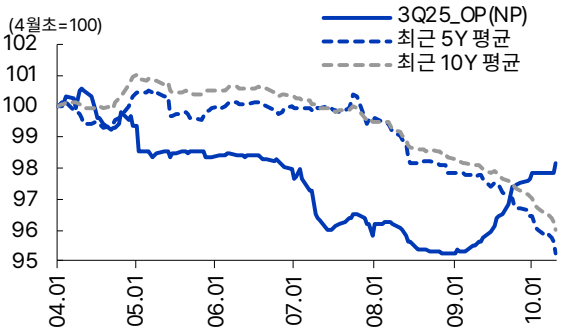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당해 4월초 이후 9월말까지 매주 컨센서스가 존재한 국내 전 종목 대상(금융 제외)

[도표 3] 3Q 실적시즌 개시 직전까지의 이익 컨센서스 흐름(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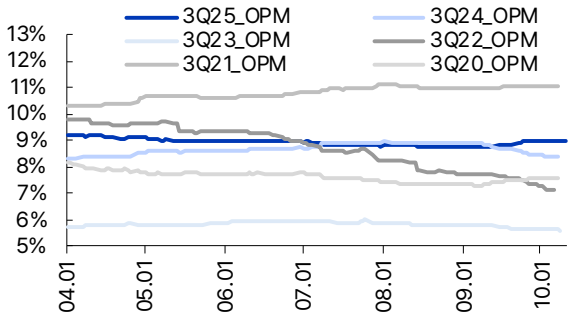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당해 4월초 이후 9월말까지 매주 컨센서스가 존재한 국내 전 종목 대상(금융은 순이익 반영)

[도표 4] 3Q25 이익 컨센서스 흐름의 최근 5년 및 10년 흐름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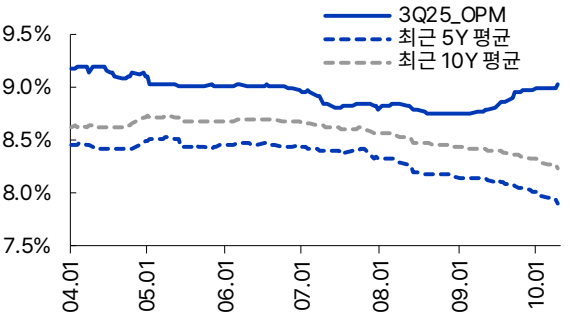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당해 4월초 이후 9월말까지 매주 컨센서스가 존재한 국내 전 종목 대상(금융은 순이익 반영)

[도표 5] 3Q 실적시즌 개시 직전까지의 예상 OPM 흐름(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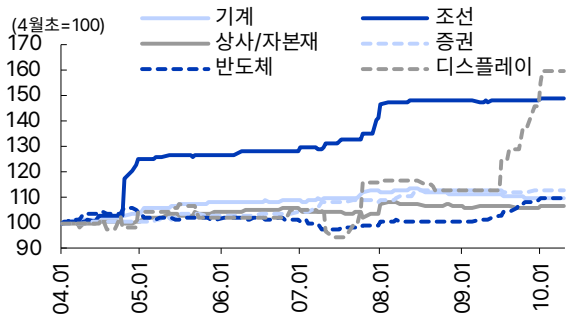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당해 4월초 이후 9월말까지 매주 컨센서스가 존재한 국내 전 종목 대상(금융 제외)

[도표 6] 3Q25 예상 OPM 흐름의 최근 5년 및 10년 흐름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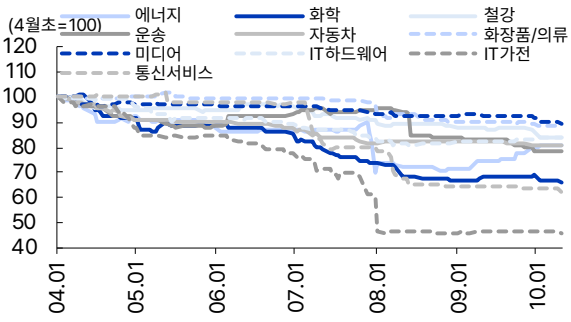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당해 4월초 이후 9월말까지 매주 컨센서스가 존재한 국내 전 종목 대상(금융 제외)

[도표 7] 3Q25 이익 컨센서스 상향 추세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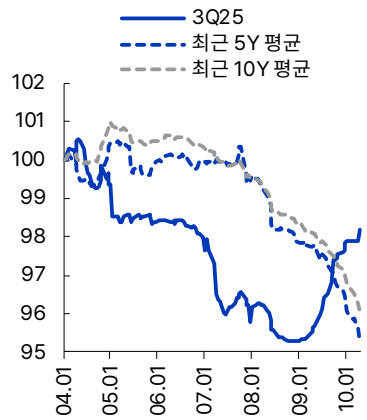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당해 4월초 이후 9월말까지 매주 컨센서스가 존재한 국내 전 종목 대상(금융은 순이익 반영)

[도표 8] 3Q25 이익 컨센서스 하향 추세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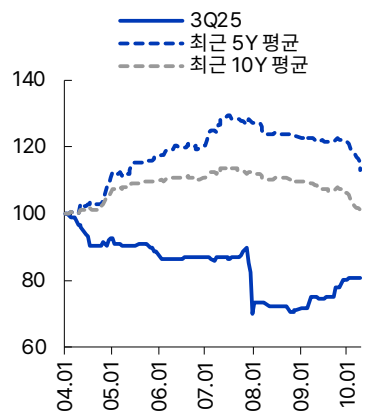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당해 4월초 이후 9월말까지 매주 컨센서스가 존재한 국내 전 종목 대상(금융은 순이익 반영)

[도표 9] 3Q 이익컨센서스 추이 비교: 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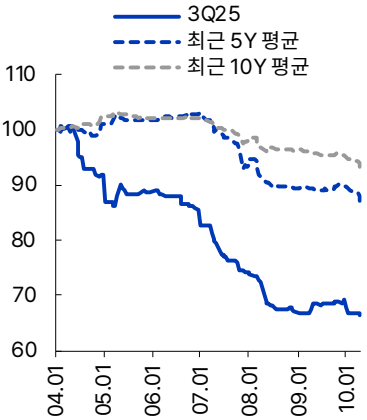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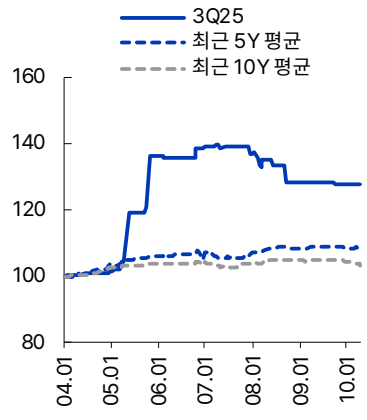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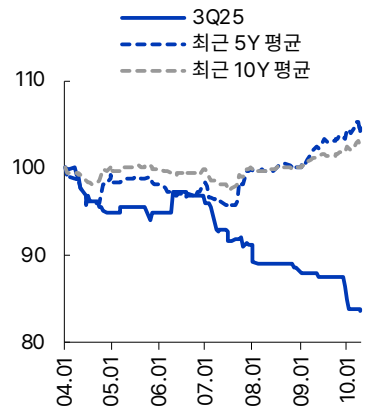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비철/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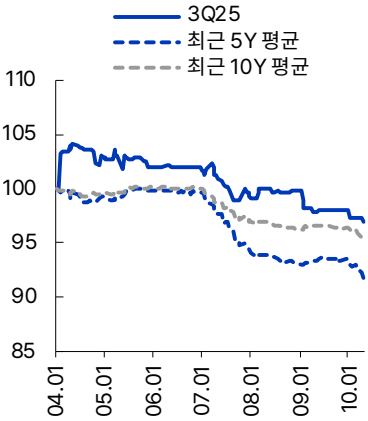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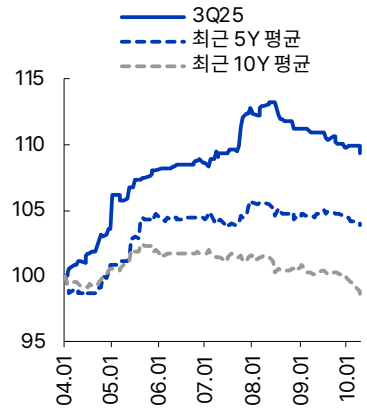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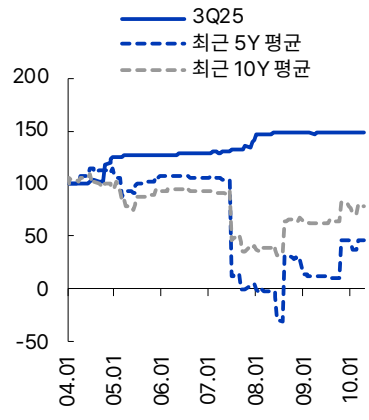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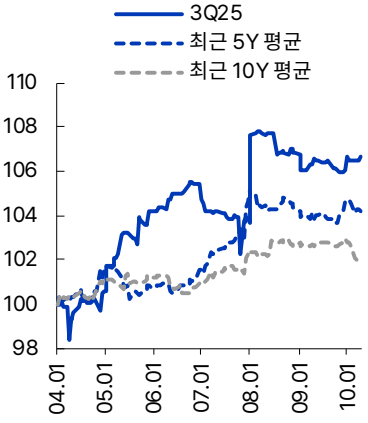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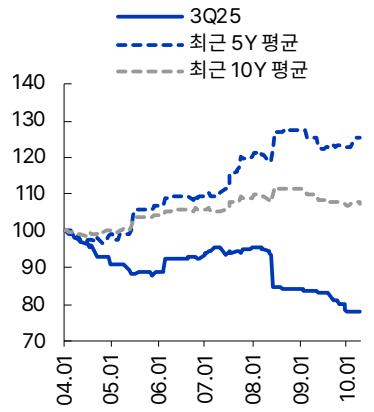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상사/자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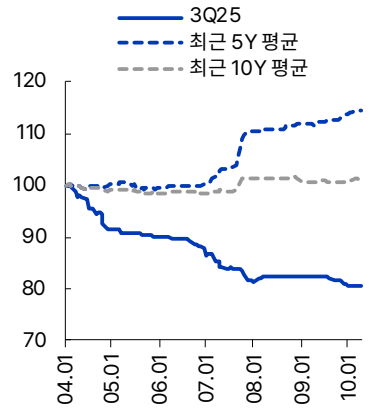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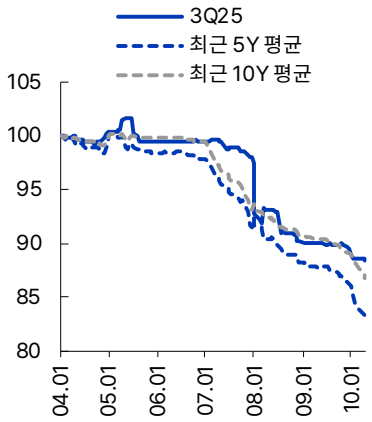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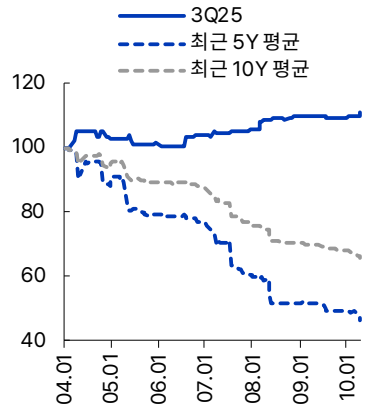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화장품/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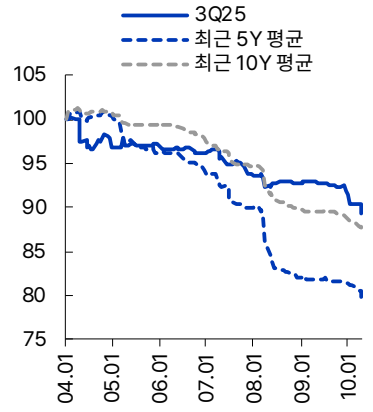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호텔/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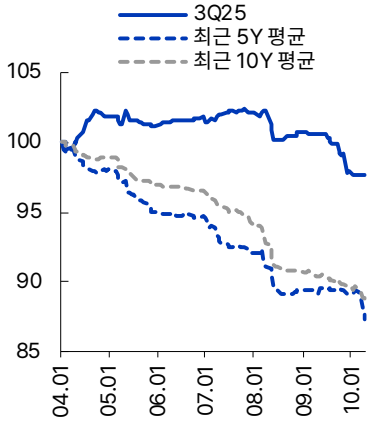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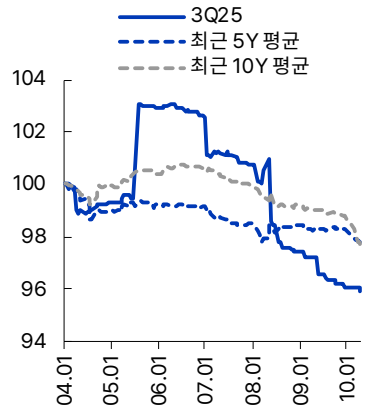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3]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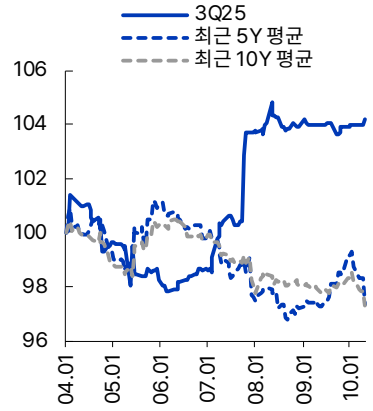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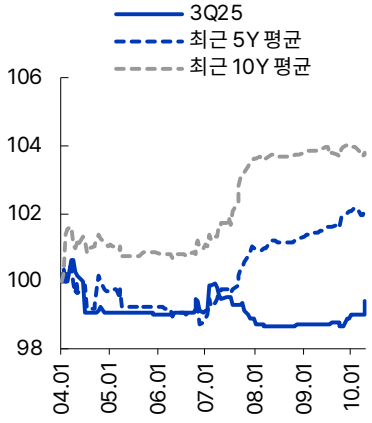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5] 헬스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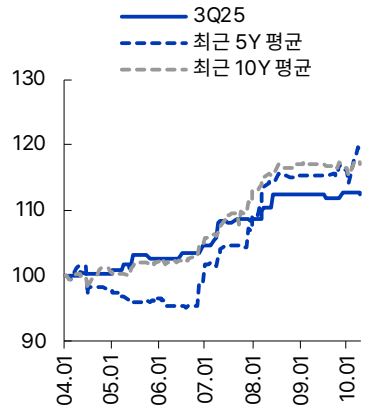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6]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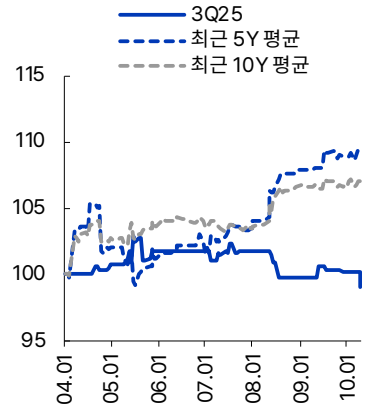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7]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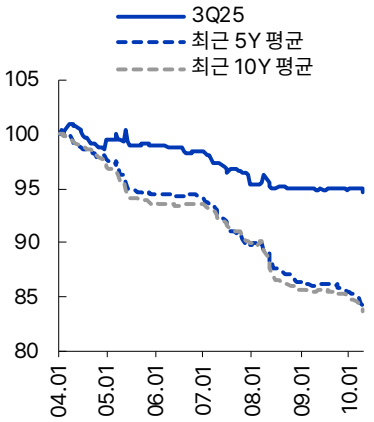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8]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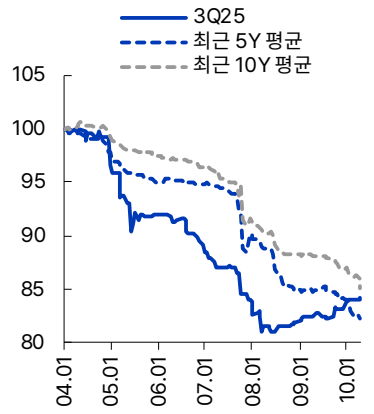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9]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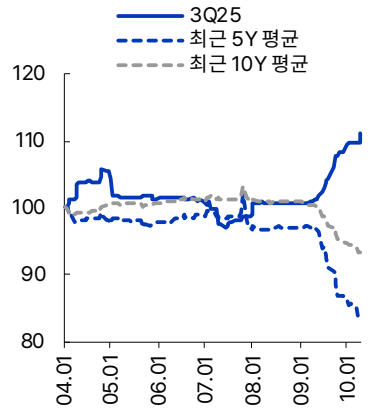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0] IT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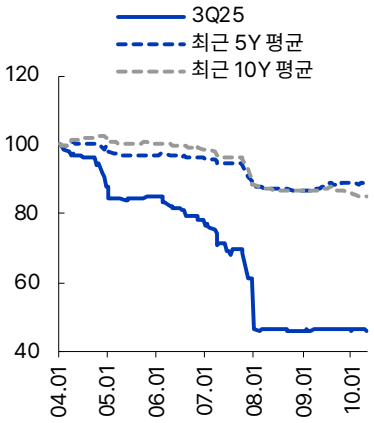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1]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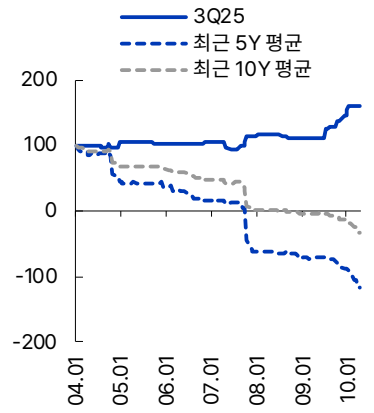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2] IT 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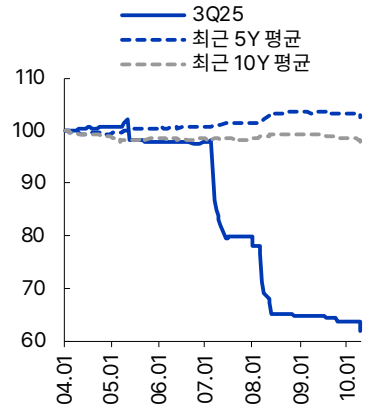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3] 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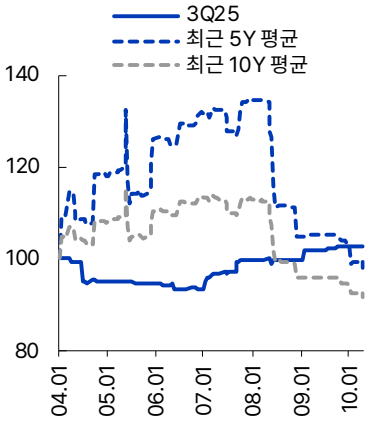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4] 통신서비스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5] 유틸리티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3Q25 어닝서프라이즈 및 주가 상방 Drift 대응을 위한 멀티팩터 전략 구상

3Q25 실적시즌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대할만한 종목과 어닝서프라이즈의 힘으로 긍정적 방향으로의 주가 Drift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3분기 실적시즌에 나타났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멀티팩터 전략을 구상해보았다.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 더욱 더 최근시점에 가까운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예측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국내 증시 실적 시즌의 개시 시점은 삼성전자(A005930)의 잠정 실적 공시일로 볼 수 있고, 그 직전 거래일의 데이터가 실적시즌 개시 전 참고할 수 있던 최근 데이터가 된다. 따라서 종목 유니버스 선정 및 이하 팩터 데이터 수집 시점을 매해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일 직전 1거래일로 정했다. 필자의 자료 작성 시점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직전임을 감안하면 현재 데이터를 통한 종목 스크리닝의 결과를 제시하기에도 이치가 맞는 시점이다.

종목 유니버스는 KOSPI, KOSDAQ을 막론하고 기준시점 기준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당분기(FQ1) EPS 컨센서스 추정수가 3개 이상인 종목군으로 선정하였다.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종목 예상을 위한 팩터를 선정해볼 때,

1) 실적 추정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갖춰진 시점에서조차 컨센서스 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종목에 대해 어닝서프라이즈 발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최근 1M 이익 컨센서스 증가율 > 0)**.

2) 동 기간 추정치를 상향한 사례가 하향한 사례보다 많다면 다수 애널리스트의 판단에 의해 컨센서스 상향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어 어닝서프라이즈 예측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 보았다**(최근 1M 이익 상향 비율 > 0)**.

3) 상향된 최종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 높은, 해당 종목 실적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가진 애널리스트 비율이 증가했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다**(최근 3M 이익 추정치 중 컨센서스 상회 비율이 1M 내 상승했는지의 여부)**.

세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추출된 종목들의 최종 어닝서프라이즈율 평균과 어닝서프라이즈 예측 적중률(전체 사례 대비 어닝서프라이즈율 +10% 이상 종목 개수 비율)을 비교했을 때 3개 기준을 모두 적용했을 때 어닝서프라이즈 예측 성과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3개 기준을 모두 적용한 종목들의 최근 5년 평균 어닝서프라이즈율은 +24.23%, 최근 10년 평균 어닝서프라이즈율은 +21.06%를 기록하며 컨센서스 상향 여부(1번 기준)만 적용한 경우(각각 +2.90%, +5.54%)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어닝서프라이즈 예측 적중률의 경우에도 최근 5년 평균 46.09%, 최근 10년 평균 44.21%를 기록하며 컨센서스 상향 여부만 적용했을 때(각각 41.10%, 37.83%) 대비 개선됐다. 개별 연도별로 산출된 데이터를 봐도 3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했을 경우의 어닝서프라이즈율 평균과 예측 적중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비해 높아짐이 다수의 연도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근거가 아닌 데이터와 확률에 기반한 과학적 근거임을 확신할 수 있다.

필자는 어닝서프라이즈뿐 아니라 **수급과 밸류 측면**에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발생할 여건이 갖춰질 때, 실적 발표 전후로 긍정적 방향의 주가 Drift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가정하였다.

해당 종목의 당시 시점(당해 3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공시일 직전 1거래일 종가 시점) 밸류(12MF PER의 최근 3년 기준 상대적 위치)와 추가 자금투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시 수급 흐름에 나타나는 센티먼트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구별된다고 가정하였다.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고도에 오를수록 '매력적 밸류'라는 투자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고 싶다는 행동 양상이 추가 자금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부진해질수록 밸류가 낮다는 매력으로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사서 이례적으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고밸류 종목이 자금 유입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2표준편차 이하의 극도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상황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본 결과로서 주가가 낮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센티먼트가 고도로 과열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금 투입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 판단했다. +2표준편차 이상의 극도로 높아진 밸류를 선호하는 상황은 센티먼트가 극도로 위축되고, 펀더멘털 상의 극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상황에 되서야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수급 상 센티먼트의 판단은 장기(최근 52주) 수급 상으로 나타나는 과열 정도와 단기(최근 60일) 수급 상으로 나타나는 과열 정도를 비교한 방향성을 5가지 그룹으로 정의해 진행하였다. 수급 상으로 나타나는 과열 정도의 판단은 해당 기간 누적순매수대금 추이와 동일 기간 수정주가 추이 간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주체(수급 주도 주체)를 판별해 그 주체의 '해당 기간 누적순매수대금'의 최근 3년 시계열 기준 상대적 위치를 계산하였다. 이를 아래 도표처럼 각각 5개 분위로 구분한 뒤, 발생가능한 25가지 경우들을 장기 수급 흐름 대비 최근의 수급 흐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과열', '강화', '유지', '약화', '소외'**의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줬다. 5가지 그룹으로 나눈 수급 심리 판단 결과를 각 그룹별 밸류 레벨에 대한 선호 가정을 결합, 4번째 스크리닝 기준을 세웠다.

실적발표일 직전 2거래일(T-2)의 시가 대비 2거래일 후(T+2)의 종가로 측정한 주가 Drift 성과와 그 Hit Ratio는 다수의 연도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예상했던 3가지 기준만 적용하는 것 대비 4번째 스크리닝 기준까지 적용했을 때에 유의미하게 개선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표 36] 수급 심리 판단 가정

수급 심리 판단 가정			단기 수급 분위 (60 일 순매수대금의 최근 3Y 기준 Sigma)				
			σ≥2	1≤σ<2	-1<σ<1	-2<σ≤-1	σ≤-2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장기 수급 분위 (52 주 순매수 대금의 최근 3Y 기준 Sigma)	σ≥2	1 분위	과열	과열	약화	약화	약화
	1≤σ<2	2 분위	과열	과열	약화	약화	약화
	-1<σ<1	3 분위	강화	강화	유지	약화	약화
	-2<σ≤-1	4 분위	강화	강화	강화	소외	소외
	σ≤-2	5 분위	강화	강화	강화	소외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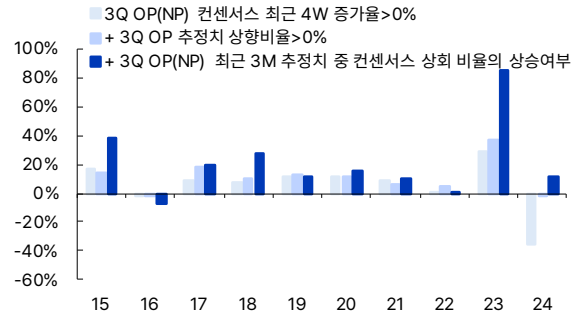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7] 수급 심리 판단에 따른 밸류 선호 판단 가정

밸류 선호 판단 가정		밸류에이션 (12MF PER 의 최근 3Y 기준 Sigma)				
		σ≥2	1≤σ<2	-1<σ<1	-2<σ≤-1	σ≤-2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수급 심리 판단 결과	과열					
	강화					
	유지					
	약화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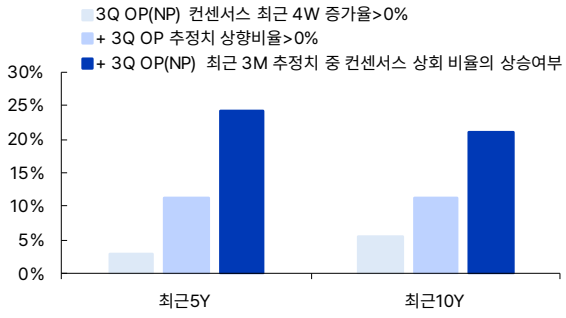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8] 팩터 추가에 따른 연도별 3Q 어닝서프라이즈율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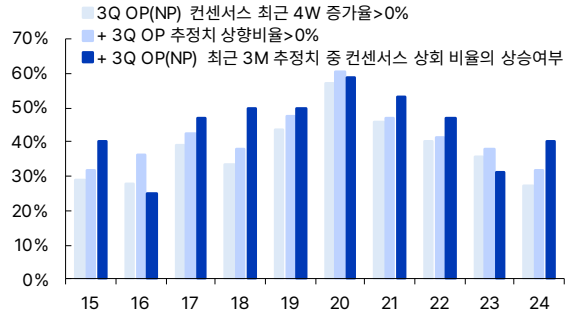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 금융은 순이익, 금융 외 업종은 영업이익 기준

[도표 39] 팩터 추가에 따른 3Q 어닝서프라이즈율 최근 5Y/10Y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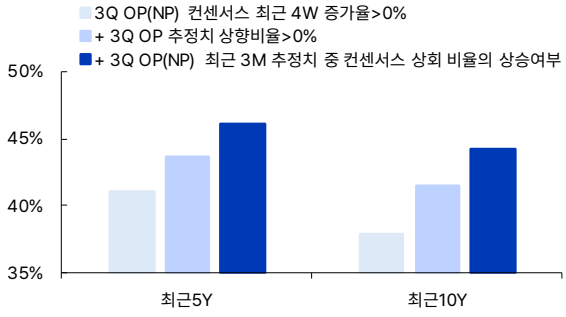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 금융은 순이익, 금융 외 업종은 영업이익 기준

[도표 40] 팩터 추가에 따른 연도별 3Q 어닝서프라이즈 Hit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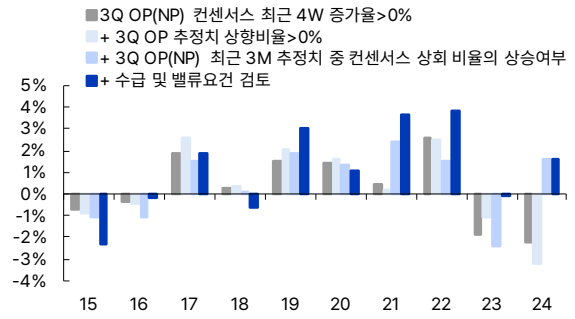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 어닝서프라이즈율 10% 이상을 기록한 종목 비율

[도표 41] 팩터 추가에 따른 3Q 어닝서프라이즈 Hit Ratio 최근 5Y/10Y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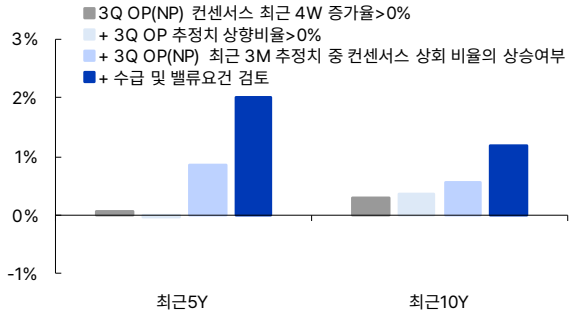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 어닝서프라이즈율 10% 이상을 기록한 종목 비율

[도표 42] 팩터 추가에 따른 연도별 3Q 실적발표 전후 수익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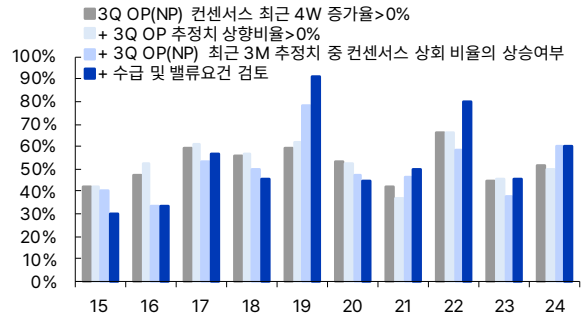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 실적발표일 T-2 시가 대비 T+2 종가의 변화율

[도표 43] 팩터 추가에 따른 3Q 실적발표 전후 수익률 최근 5Y/10Y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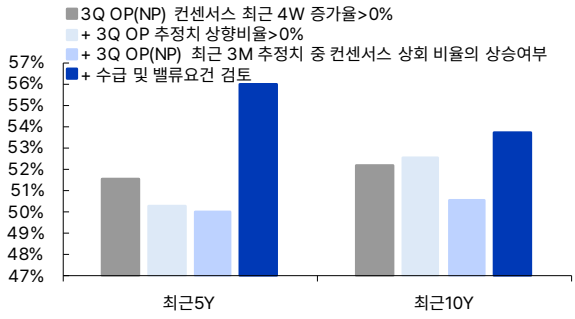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 실적발표일 T-2 시가 대비 T+2 종가의 변화율

[도표 44] 팩터 추가에 따른 연도별 3Q 실적발표 전후 수익률 Hit Ratio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 실적발표 전후 수익률이 양을 기록한 종목 비율

[도표 45] 팩터추가에따른3Q실적발표전후수익률Hit Ratio최근5Y/10Y평균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 실적발표 전후 수익률이 양을 기록한 종목 비율

3Q25 어닝서프라이즈 예상 종목군 및 주가 상방 Drift 기대 종목군

정리하면,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예상 종목군을 선정하기 위한 팩터로 1) 이익 컨센서스의 최근 1개월 간 상향 여부, 2) 양을 기록한 최근 1개월 이익 상향 비율, 3) 최근 3M내 추정치들에 대해 계산한 컨센서스 상회 추정치 수의 비율이 최근 1개월 내 높아졌는지의 여부를 활용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도표로 제시한 23가지 종목들이다(10월 10일 시점 데이터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로템, 하나금융지주, LG화학, 크래프톤, 미래에셋증권, 현대글로비스, 에코프로비엠, 에이피알 등 종목의 3Q25 어닝서프라이즈를 예상한다.

아울러 장기 수급 대비 단기 수급이 보이는 수급 상 센티먼트 심리의 변화를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준 뒤, 각 그룹별 밸류 선호 양상을 가정해 준 4번째 스크리닝 기준을 주가 상방 Drift 유력 후보군 선정을 위해 추가 적용하였다. 어닝서프라이즈 예상 종목군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에코프로비엠, LG디스플레이, 리노공업, 엘앤에프, CJ대한통운, 에스티팜 등 종목에 대해 3Q25 실적시즌 실적발표에 따른 주가 상방 Drift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도표 46] 3Q25 실적시즌 어닝서프라이즈 예상 종목 및 주가 상승 예상 종목 점검 (단위: %, σ)

종목코드	종목명	업종	시가총액 (십억원)	OP(FQ1) 조정비율 (1M)	OP(FQ1) 증가율 (1M)	1M전 OP(NP) 추정치 중 컨센 상회율	현재 OP(NP) 추정치 중 컨센 상회율	52W 수급 주도 주체	52W 수급 3Y σ레벨	60D 수급 주도 주체	60D 수급 3Y σ레벨	수급 상 심리변화	P/E(12MF) 3Y σ레벨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558,814	82.6	13.7	50.0	52.2	기관	2.22	기관	1.35	과열	-0.05
A000660	SK 하이닉스	반도체	311,585	75.0	5.7	45.8	58.3	외국인	1.38	외국인	0.72	악화	0.09
A064350	현대로템	기계	24,011	5.9	1.4	50.0	52.9	외국인	1.35	외국인	1.78	과열	2.03
A086790	하나금융지주	은행	23,936	9.1	0.9	46.2	50.0	기관	0.57	기관	-0.16	유지	1.89
A051910	LG 화학	화학	19,695	23.5	3.0	47.4	52.9	외국인	0.97	기관	-0.64	유지	2.31
A259960	크래프톤	소프트웨어	14,313	11.8	1.1	35.3	41.2	기관	0.19	외국인	-1.94	악화	-1.88
A006800	미래에셋증권	증권	12,518	33.3	0.6	33.3	37.5	기관	3.32	기관	1.55	과열	2.63
A086280	현대글로비스	운송	12,285	12.5	0.3	37.5	43.8	외국인	0.45	외국인	2.34	강화	1.40
A247540	에코프로비엠	IT 가전	10,983	11.8	0.9	37.5	41.2	기관	0.07	기관	0.19	유지	0.16
A278470	에이피알	화장품/의류	9,620	38.9	4.6	50.0	61.1	외국인	2.02	외국인	1.01	과열	2.11
A034220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7,810	80.0	46.4	44.4	80.0	외국인	2.76	외국인	4.57	과열	0.39
A011070	LG 이노텍	IT 하드웨어	4,539	35.0	2.1	42.9	55.0	외국인	-0.39	기관	0.55	유지	2.27
A138930	BNK 금융지주	은행	4,430	44.4	3.9	45.5	72.7	기관	2.25	기관	1.83	과열	2.03
A058470	리노공업	반도체	4,093	14.3	0.4	44.4	57.1	기관	0.25	개인	1.00	유지	0.44
A066970	엘앤에프	IT 가전	2,593	18.8	36.5	46.7	50.0	외국인	-0.17	기관	0.12	유지	0.14
A000120	CJ 대한통운	운송	1,889	33.3	1.7	50.0	66.7	기관	-1.49	기관	-0.88	강화	-0.84
A237690	에스티팜	헬스케어	1,869	12.5	1.4	22.2	25.0	기관	0.08	기관	0.99	유지	-1.05
A122870	와이지엔터	미디어	1,862	9.1	3.0	50.0	54.5	기관	2.11	기관	1.32	과열	1.58
A222800	심텍	IT 하드웨어	1,782	14.3	2.3	66.7	71.4	기관	0.21	외국인	4.68	강화	0.66
A095340	ISC	반도체	1,711	22.2	0.3	60.0	66.7	기관	0.77	기관	1.13	강화	1.03
A032350	롯데관광개발	호텔/레저	1,363	50.0	3.4	37.5	66.7	기관	2.27	기관	0.66	악화	0.07
A195940	HK 이노엔	헬스케어	1,285	25.0	3.3	50.0	75.0	개인	1.35	기관	-0.86	악화	-0.67
A069260	TKG 휴켐스	화학	717	33.3	10.5	50.0	66.7	외국인	-0.44	기관	0.41	유지	1.5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10월 10일 종가 기준. 음영으로 표시한 종목은 수급흐름 및 밸류에이션 레벨 상 주가 상승에 유리한 여건으로 판단되는 종목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